

청년, 어디에 사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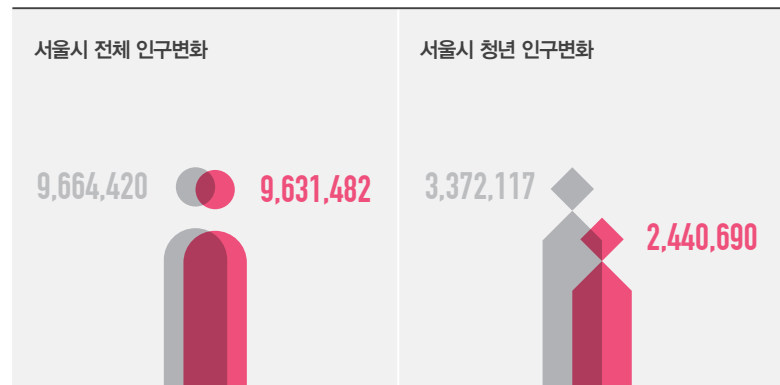
전국 1,029만명의 청년 중 24%인 244만명이 서울에 거주한다.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전국 청년인구비율이 33%에서 21%로 크게 줄었지만 서울은 25%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. 20년간 서울 각 자치구별로 청년인구비율이 어떻게 변화했고, 어느 구에 많이 거주하는지 알아보았다.

[청년 기준 20-34세 | 자료 1990년,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]

1990 2010

1990, 2010 서울시 인구 변화

단위: 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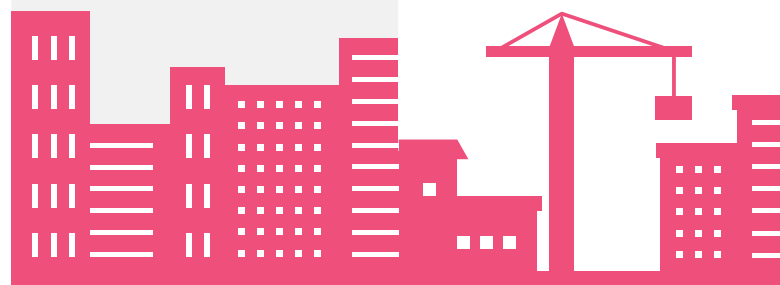
청년 인구변화 왜 일어났을까?

단위: 명



20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인구밀도가 증가했다. 3만 7천명이나 증가했는데, 1980년대 강남지역 개발과 함께 넘어온 젊은 가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고, 각종 대기업의 본사 및 관련 업체 등 급여가 높은 직장들이 위치해서 높은 주거비용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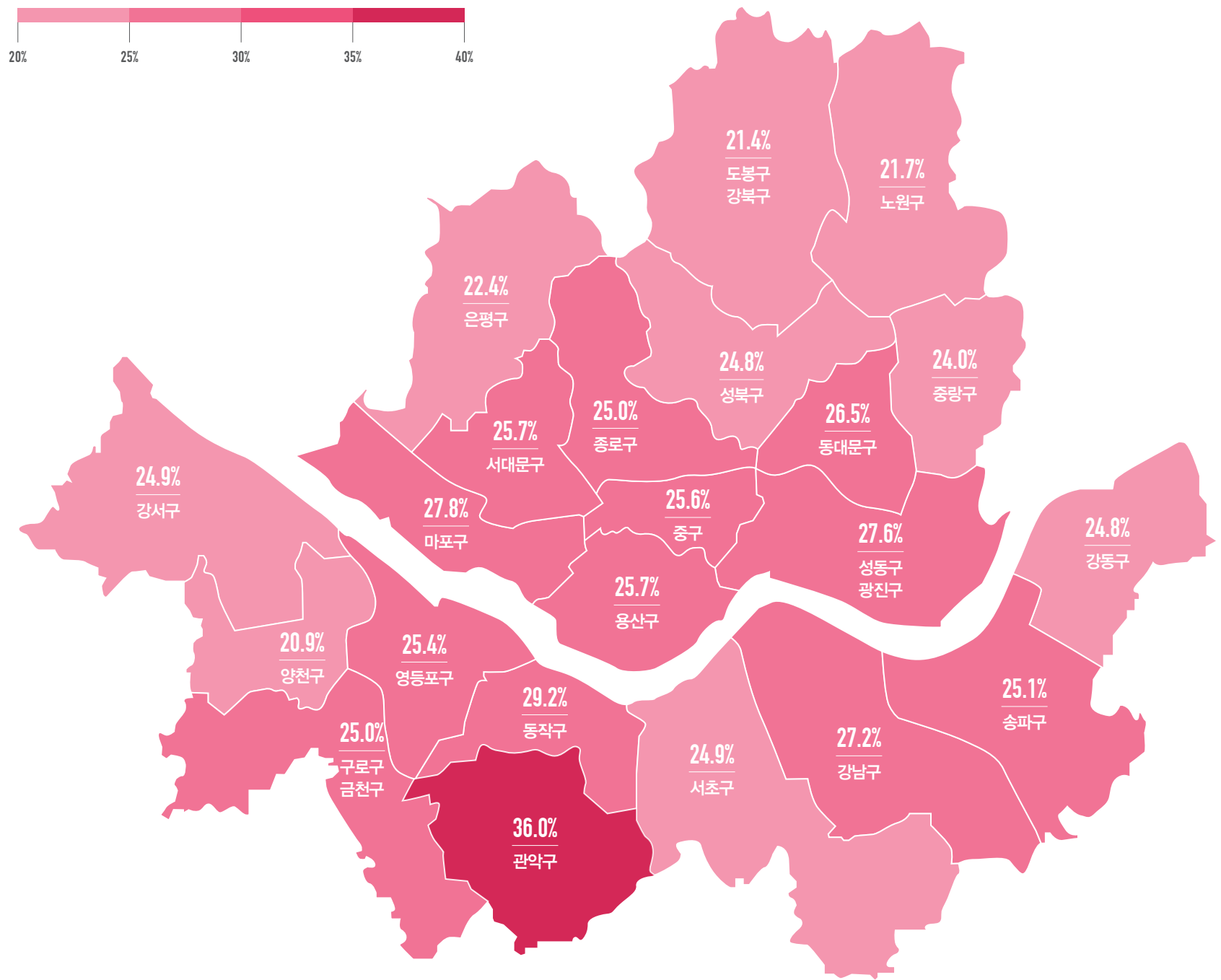
서울의 모든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의 청년인구밀도가 가장 많이 줄었다. 1995년에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구했는데 20년간 성동+광진구 영역에서 11만 명 가량의 청년인구가 줄었다. 2000년에 들어오면서 동대문 등 도심으로 출퇴근하던 청년들의 저렴한 주거형태가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됐다. 왕십리 중심의 교통 중심화로 주거비가 상승, 청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.



2010 구별 청년인구 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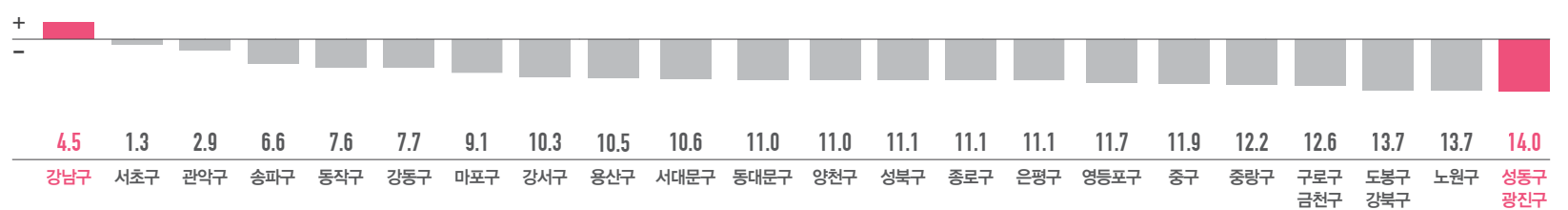
구별 인구 중 청년 비율

단위: %



1990, 2010 구별 청년인구 밀도 변화

단위: %



1990, 2010 구별 청년인구 수 변화

단위: 명

